

초록번호 07-2

제 목	국 문	급성심근경색증환자의 생존 및 예후요인		
	영 문	Survival and Its Determinants of AMI patient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천병렬, 박의현1), 전재은1), 채성철1), 이영숙, 손재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내과학교실1)		
	영 문	Byung-Yeol Chun, MD Wee-Hyun Park, MD1) Jae-Eun Jun, MD1 Shung-Chull Chae, MD1) Young-Sook Lee, MD Jae-Hee Son, MD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1)		
분 야	역학	발 표 자	이 영 숙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99 년 6 월			
<p>1. 연구 목적</p> <p>심혈관계 질환은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10년간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 5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여 1개월 사망률과 그에 관련된 예후요인(연령, 성, 음주력, 흡연력, 고혈압 병력, 혈청 총 콜레스테롤)을 조사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1997년 7월 1일에서 1998년 6월 30까지 1년 동안 경북대학교 순환기내과에 입원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들을 모두 등록하여 심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면접하여 미리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초 진단일로부터 1월, 3월, 6월, 9월, 12월 되는 시점에 각각 전화로 생존상태를 추적 확인하였다.</p>				

3. 연구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등록된 환자는 205명 중 추적이 불가능하였던 5명을 제외한 200명(남자 147명, 여자 53명)을 대상으로 생존과 관련된 예후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증환자의 1개월 사망률은 8.9%였다.

단변량분석에서 연령, 흡연, 고지혈증이 유의한 변수였다($p < 0.05$).

그러나 연령, 성, 흡연, 음주, 고혈압력, 총 콜레스테롤 등을 독립변수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성, 흡연이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다($p < 0.05$). 즉, 연령이 많을수록(70세 미만 vs 70세 이상; $OR=7.1$), 남자가 여자보다 (여자 vs 남자; $OR=6.7$), 그리고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흡연자 vs 비흡연자; $OR=11.1$)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4. 고찰

급성심근경색증환자의 1개월 사망률은 8.9%이었고, 연령, 성, 흡연이 유의한 예후요인이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성적으로, 이는 흡연자에게 돌연사가 더욱 많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내원 24시간 이내에 급사한 경우와 D.O.A.를 제외한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